

2008년 12월 11일 목 말씀

예술단 지도자들은 신앙의 근본을 심어줘야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끌고 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나도 그렇고 교회 다닐 때 재미있어서 다닙니다. 9살 때였는데 교회가면 재미있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넘어서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닐 때 있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만 해주고 신앙을 안 넣어줘서 그런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신앙을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넣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라 잘 볼 수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잘 모릅니다.

과학의 전문가들이나 별의 세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일반사람은 잘 모릅니다. 거기의 전문가나 거기에 대해서 알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 잘 모릅니다.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진지 2000년이나 지나서 신앙 생활하는 지도자들이 잘 모릅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도 자기 수준대로 이야기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잘 심어줘야 합니다.

중고등부는 무(無)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뭘 안다고 할 때는 가려냅니다. 어렸을 때는 주는 대로 막 먹습니다. 쇠붙이고 뭐고 다 먹습니다. 그러듯이 중고등부 때는 지도자가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생이 연구해 놓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조목조목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지체를 가르칠 때도 한번에 다 가르치면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체를 가지고 있어도 지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르칠 때는 다 배워서 알지만 그냥 한꺼번에 배우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 초근, 초근 구분해서 세밀하게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성경에 엄청난 31062절을 가지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잘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대개 한국 교회의 70%이상이 중고등부 때, 초등부 때 와서 장년부가 된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전도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도 그렇습니다. 어른들 전도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들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된 것입니다. 거의 중고등부가 커서 올라온 것입니다. 대학부는 내가 엄청 밀어붙여서 전도됐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중고등부 열심히 하십시오.

목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십시오. 목회 열심히 하면 한 자리에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회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나뉘지면 안 됩니다. 교회 숫자만 많아도 안 되고 교인들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별통을 옮기듯이, 별통을 너무 자주 옮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살지만 겨울에는 죽기 때문입니다. 분봉하다가 죽는 교회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다고 분봉 안 하면 안 됩니다. 벌이 많아지는데 옮기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벌이 별통을 한 번 분봉할 때 6만 마리씩 분봉시킵니다. 분봉할 때 분봉 안 하면 벌들이 거기에서 계속 많아지고 군사 실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됩니다. 그 한정된 세계에서 살게 되니까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에 10명 살아야 되는데 20명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살다가 결국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분봉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십시오.

목표를 잡고 해야 합니다. ‘이번엔 50명 하자’ ‘이번엔 20명 하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컨트롤을 하면서 매일 운동하듯이 교회도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못 느끼면 못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하고 자기가 느껴야 합니다. 그 느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기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알고 주장하라!’ 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 가르쳐 달라고 해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알고 주장해야 합니다. 모르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알고서 주장해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주장하라’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백 장 넘게 써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꾸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발견해야 됩니다.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듯이,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해서 만들었듯이 발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고 세상에다 발견할 것이 많고 좋은 사람도 발견할 것이 많고 발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세계를 말하는 사람이 인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많이 배우라고 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돼서 지금까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별들의 세계는 내가 20대 때 벌써 연구가 끝났습니다. 별들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대학부들 꼭 진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별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별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요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별에 대한 도표가 엄청 많은데 별은 다 동일합니다. 별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늘나라를 연구합니다.

회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법칙에 따라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교통수단은 점차적으로 발달되었습니다. 걸어다니다가 자전거 타다가 자동차 타다가 나아가서 비행기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도 이렇게 발달되어야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산에서 명상하며 기도할 때 이 빛보다 더 빠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이고 영의 세계고 영과의 세계입니다.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150억 광년이 걸립니다.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150억 광년 가야 저 은하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 세계로 올 때까지는 잠깐 사이에 옵니다. 영의 세계는 항상 거리가 잠깐입니다. 순간, 잠깐. 그 세계를 발견하고 배우느라 산에서 2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영은 정신의 실상입니다. 정신이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빠릅니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게 빠릅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런 세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다가 나를 보면 젊어 보일 것입니다. 나는 결혼도 안하고 세상도 모르고 사니까 아무래도 더 젊게 삽니다. 그러나 속은 백배 천배 더 많이 썩고 삽니다.

매일 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헛바닥을 깨물면서 운동합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 정해놓으면 운동을 해야 했는데 운동하기 싫어서 '내일이 또 왜 오나. 오지마라. 내일 오지마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몸 아파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건강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40대 50대 가 운동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체질이 계속 습관이